

원룸 쪼개기·복층형 무단변경 수두룩

불법 건축물 난무하는 남약신도시 가보니

임대소득 늘리려 무허가 증축...관리감독은 허술 전남지역 작년 '방쪼개기' 건축사 101명 적발도

지난 7일 찾은 무안군 삼향면 남약신도시 상가밀집지역 A음식점은 복층 구조로 이뤄져 있었다. 식당은 5m 높이 중간에 별도의 공간을 허가 없이 조성한 뒤 창고 등 임의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A음식점 옆에 위치한 B식당도 1·2층 구조변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임대 상가 10개 중 3~4개는 일반 주택·상가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복층형'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해 운영하는 게 '유형'처럼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남약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단독주택 주거지역(1층 상가·2~3층 주택)의 경우 '복층형' 구조변경은 불법임에도,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룸 쪼개기, 분양률을 높이 위해 일조권 등을 무시한 건축물 구조 변경 등도 성행하고 있다.

남약신도시가 불법 건축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인구 3만8000명의 남약 신도시의 불법 건축비리를 잡겠다며 군(郡) 단위 경찰서가 지구대에 '부정부패척결수사팀'까지 결성했을 정도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부재와 건축사의 묵인 등이 겹쳐지면서 온갖 불·탈법 행위가 극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안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남약신도시를 관할하는 남약지구대에 부정부패척

결 특별수사팀을 만든 뒤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남약신도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허가 비리, 토착비리 등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건축주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등에 게 돈을 받고 용도변경행위를 눈감아준 혐의 등으로 무안군 직원도 소환 조사했다.

무안경찰청은 "다음주 관련 수사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비리 행위를 적발했음을 시사했다.

무안 남약신도시개발사업소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는 36건으로, 무허가 증축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무단용도변경 8건 ▲가설건축물 무허가 신축 3건 등이다. 경찰청은 그러나 단속 인력 등을 들어 관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건축물 실태는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예상했다.

남약신도시의 경우 짧은 기간 도심 조성을 목표로 해 이뤄진데다, 분양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리·감독 기능까지 약화돼 불법 증·개축 및 용도 변경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전남도도 지난 한 해 동안 건축주와 짜고 이른바 원룸을 투룸으로 '방 쪼개기'를 한 건축사 10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내 건축사 수가 290명인 점을 감안하면 3명 중 1명이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하다가 업무정지 등 처벌을 받은 것으로, 대부분남약신도시 일대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무단용도변경 127건 ▲무허가 증축에 따른 일조권 및 견제·용적률 위반 133건 ▲부설주차장 및 조정시설 무단훼손 106건 등이다.

한편, 남약신도시엔 공동주택 17개 단지(9080세대)가 들어서 있으며 주상복합용지는 9개소·1119세대다. 공공기관은 76개소이며 상업·업무용지는 261곳이다. 단독주택은 607개소·694세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나주시 외국인 노동자 폭행사건 놓고 논란

밥그릇 탐내는 또 다른 '甲'인가 노동자 권리 위한 집단행동인가

건설노조 집행부 3명 입건 추가 출석요구에 노조 항의

건설 현장의 을(乙)인 외국인 노동자의 밥그릇을 탐내는 또 다른 갑(甲)인가. 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한 건설노동자단체의 집단 행동인가.

최근 발생한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건설노조)의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을 놓고 노동계 안팎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시경찰이 지난달 14일 나주시 혁신도시 내 A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에 있던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노조 집행부 박모(53)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경찰은 언뜻 단순한 폭력 사태로 보이지만 당시 현장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건설노조의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당시 '불법 체류자 고용금지' 등을 내세우며 연 집회는 소속 조합원들 대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건설사를 상대로 한 시위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외국인 노동자가 폭력 피해를 당한 사건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 일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행태가 형성될 경우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 '을(乙)인 외국인 노동자를 몰아내기 위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 영상을 분석,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거나 공사 방해에 가담한 건설노조 조합원 5명에 대해 추가로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내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당 건설사도 법원에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하지만 노조측은 "당시 현장에서 일부 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외국인 노동자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노조 집행부가 입건돼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도 경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측은 또 당시 발생한 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건설사의 외국인 편법 고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펼치는 경찰에 대한 불만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최근 나주시를 찾아 과잉 수사를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형호기자 khh@

“세월호 수색 민간업체 철수 공식논의 된 것 없다”

범대본, 철수설 입장 밝혀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수색 현장에 있는 민간 바지선 철수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나 철수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9일 밝혔다.

범대본은 일부에서 제기된 민간업체 88수중환경의 철수설에 대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관련 민간업체 투입 및 철수는 수난구호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다”며 “민간 잠수사 개인 자격이 아닌 민간업체와 범대본 사이 철수 여부를 논

고 공식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범대본과 88수중 관계자는 “88수중 소속 일부 잠수사가 실종자 가족과 일부 언론에 바지 철수와 수색 종료 사실을 개인 자격으로 말한 것이 마치 공식 입장처럼 와전됐다”면서 “88수중 공식 입장은 여전히 정부의 구호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본은 조만간 실종자 가족과 면담을 갖고 수색종단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색 일정 전반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도둑맞은 택배 배송 명품시계…범인은 동료 택배기사



○…광주의 한 택배 배송하차장에서 동료 택배기사의 배송물품을 훔쳐간 4대 택배운전기사가 동료의 신고로 경찰에 걸렸다.

○9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43)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A택배 배송하차장에서 동료 택배운전기사 선모(40)씨가 배달하려고 자신의 택배화물차 앞에 쏘아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1점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경찰은 선씨의 신고를 받고 A택배 배송하차장에 설치된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내 배송물품인 줄 알고 가져갔을 뿐이다. 가져간 배송물품은 없어버렸다”며 범행 일체를 전면 부인.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사랑의 김장나눔 지난 8일 오전 광주시 북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지사에서 열린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행사'에서 봉사원들이 김장을 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소방·구급차 진입 어려운 도로 24곳

광주지역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가 24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설 의무가 자치구에 있지만,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구들이 예산 부족으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임택(새정치·동구 1) 의원

에 따르면 광주지역에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모두 24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곳은 소방차가 아예 들어갈 수 없고, 14곳은 소방차 진입장에 지역이다.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은 폭이 4m 이내(구급차 3m 이내)며, 구간거리 70m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소태3번길 등 5곳, 서구는 쌍촌동 옛 장군 관사주변 도로 등 7곳, 남구는 송의중·고교 진입로 등 3곳 등이다. 북구는 우산동 말바우시장 주변 도로 등 2곳, 광산구는 송학동 국룡마을 진입로 등 7곳이다. 이들 도로 총 연장은 무려 7420m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동구 필문대로 273번길 등 4곳은 소방차는 물론 구급차조차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광주시 조례에 폭 20m 이상의 도로는 시가,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가 관리하게 돼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가 임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주시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개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시와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개설에 열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현일기자 cki@

당뇨환자를 위한 매출 3% 기부금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5억원 가입

전남대학교병원

H 현대해상화재보험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산물

자연산 100%

런칭 기념 2+1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시럽 프리미엄 28,000원
- 시럽 일반 22,000원
- 가루 38,000원
- 고체 36,000원

(무로배송)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U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